

향후 5년 간 SOC 투자, 50조원은 더 필요하다

이 상 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2월 15일에 ‘확장적 재정정책과 SOC 투자 확대’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경제성장률과 재투자 비용을 감안하여 적정 SOC 투자규모를 추정해본 결과, 우리 SOC 투자 예산은 향후 5년 간(2016~2020) 최대 47.2조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했다. 다시 말해서 우리 SOC 예산은 향후 약 50조원의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국민들이나 심지어 건설업계 종사자들까지도 SOC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진 SOC에 대한 인식 수준은 이렇다. “우리나라의 SOC 스톡은 충분하다. 그것도 OECD 평균 수준 이상이다. 전 세계적으로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건설투자 비중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다. 따라서 우리도 SOC 투자를 줄여 나가야 한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논리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향후 5년 간(2016~2020) SOC 예산을 해마다 6.0%씩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사실 우리 SOC 스톡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국토 면적당 연장(km) 기준으로 보면 G20 국가 중 우리 고속도로는 1위, 일반국도는 3위, 총연장은 6위다. 그런데 인구 밀도가 높고 국토 면적이 좁은 우리 특성을 반영한 기준으로 평가해보면 결론이 달라진다. 예컨대 1인당 연장 기준으로 보면 고속도로는 8위, 일반국도는 13위, 총연장은 18위에 불과하다.

어떤 국제 비교 기준이냐에 따라 우리 SOC 스톡도 OECD국가 중 평균 수준 이하가 된다. 또 하나 논점이 있다. 왜 우리가 OECD국가 평균 수준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가? 벤치마킹 대상을 찾고자 한다면 싱가포르, 홍콩, 스위스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 경쟁력을 가진 나라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국민소득이 늘수록 SOC 투자가 줄어든다는 것도 오해다. OECD국가의 장기(1970~2012) 자료를 보면, 1인당 소득이 증가할수록 건설투자 ‘비중’은 줄었어도 ‘금액’은 늘었다.

우리 SOC 정책의 목표도 시설물의 양적 확대가 아니라 이용자 편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

다. 싱가포르의 육상교통 마스터 플랜(2013)은 “10명 중 8명이 도보로 10분 이내 역 접근, 대중교통으로 20km 미만 이동시 85%가 60분 내 도착, 혼잡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 비율 75%”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세계 1위의 인프라 경쟁력을 보유한 싱가포르도 지속적으로 SOC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 SOC 정책은 잘못된 인식이나 논리를 탈피하여 글로벌 인프라 전쟁이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새 판을 짜야 한다. 단기적으로 향후 5년 간 50조원의 추가적인 SOC 투자 확대를 위한 재원은 어떻게 조달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해 너무 쉽게 “정부 재원은 부족하니 민간투자를 확대하자”고 답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우리 민간투자사업은 사실상 지속적으로 위축세다.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가 폐지된 이후 금융기관이나 건설업체는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소극적이다. 시민단체나 일반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과 여론 때문에 정부도 적극 나서지 않는다. 국책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산적한 문제점도 장애물이다.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에만 의존해서는 당장 필요한 SOC 투자 재원의 확보를 기대하기 어렵다.

대안은 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다. OECD만 해도 우리에게 확장적 재정정책을 권고했다. OECD는 작년 11월 말에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3.0%에서 2.6%로 하향 조정하면서 GDP 대비 0.5% 수준의 추가적인 재정 투자는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 GDP 규모가 약 1,500조원이기 때문에 약 8조원 정도의 추가적인 재정 투자는 문제없다는 것이다. 연간 약 8조~10조원 정도의 추가적인 재정 투

자로 향후 5년 간 필요한 50조원의 SOC 투자 소요는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올해부터 왜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고 중요한가?

첫째, 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해 필요하다. 작년 종합건설업체의 수주 실적은 사상 최고치인 165조원을 기록했지만 토목공사 수주액은 38조원으로 전년 대비 16%나 줄었다. 더 이상 추가적인 주택경기 부양이 어렵다면 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한 SOC 투자 확대는 불가피하다.

둘째, 우리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를 탈피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대에 고착화되고 있는데, 작년 하반기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50%를 넘었다. 주택경기 급락으로 건설투자가 줄어든다면, 더 이상 일자리 창출과 성장도 기대할 수 없다.

셋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 건설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토목공사 발주처는 대부분 공공부문이다. 국내에서 토목공사 발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건설업체들이 실적과 경험을 쌓을 길이 없고, 해외 진출도 어렵다.

넷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기존 노후 SOC 시설의 개량이나 신규 SOC 사업은 모두 정보통신 기술(ICT)과 접목되어야 하고, 사물인터넷(IoT)이 구현되는 스마트 인프라로 구축해야 한다.

올해 우리나라는 내외외환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위기를 겪을 것이다. 이런 시기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SOC 투자 확대로 건설산업이 일자리 창출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면, 또다시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위상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END**